

# 김혁철 베이징 도착... 고위급 회담 준비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일행이 19일(현지시간)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김혁철 대표는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의제 협의를 위해 평양을 출발해 경유중인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 뉴스

## 비건 美 특별대표와 22일째 회담 가질 듯 '하노이 선언' 도출 치열한 줄다리기 예상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의 대미특별대표(전 주 스페인 대사) 일행이 19일 오전 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오전 11시쯤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 대표 일행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할 예정이다. 베이징에서 곧바로 하노이로 출발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대표의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워싱턴 출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김혁철-비건 회담은 20일 또는 22일 안팎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와 김 대표는 지난 1월 김 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잠깐 만났으며, 이달 초 평양에서 첫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이들은 영변 핵시설 폐기,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동결, 외교적 접근을 통한 관계개선 방안,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시작하

기 위한 다자협의체 구성 등 현 시점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11일 미국을 공식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한 자리에 배석해 "북한과의 실무협상에서 (정상회담의) 12개 이상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지난해) 싱가포르(회담) 선언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실무회담에서는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북미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실무협상)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에 열리는 실무협상에서 '하노이 선언' 초안을 도출하기 위한 양북비 양측의 치열한 퍼즐맞추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뉴스



이스라엘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 IL은 18일(현지시간) 달 탐사기 '베레시트'를 오는 21일 미국 플로리다 주 케이프 케너버럴 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7일 텔아비브 인근 시설에서 공개된 베레시트 원형 모습. 뉴스

## 이스라엘, 달 탐사기 '베레시트' 21일 발사

### 미국 등 이어 4번째...착륙 성공시 민간 최초

이스라엘 민간 우주개발 단체 '스페이스 IL'은 오는 21일(미국 동부시간) 달 탐사기를 플로리다 주 케이프 케너버럴 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고 예루살렘 포스트와 AP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스페이스 IL과 이스라엘 국영 아에로스페이스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달 탐사기를 스페이스 팰컨 9 운반로켓에 실어 이같이 쏘아올린다고 발표했다.

스페이스 IL의 탐사기가 달 표면에 착륙하는데 성공하면 옛 소련, 미국, 중국에 이어 4번째가 되며 민간 주도 프로젝트로는 사상 최초를 기록하게 된다.

달 탐사기는 히브리어로 성서의 창세기 또는 태초를 의미하는 '베레시트(Beresheet)'로 이름을 붙였다.

하먼 4월 11일에 달 표면에 도달한다. 베레시트는 착륙 후 자장에 관한 조사와 실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베레시트의 개발과 조립 비용은 1억 달러(약 1천266억원)로 다른 국가의 달 착륙 탐사기와 비교하면 훨씬 저렴하게 건조했다.

스페이스 IL의 이도 안테마 최고경영자(CEO)는 "달로 가는 길은 과제가 산적하고 극히 복잡한 여정"이라며 베레시트의 착륙을 성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베레시트 발사 프로젝트는 스페이스 IL이 구금이 3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진행한 '달 착륙 X프라이즈' 공모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애초 베레시트는 지난해 12월에 쏘아 올릴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바 있다. 뉴스

## 美 16개 주정부 "트럼프 비상사태 위험"

### 캘리포니아·매릴랜드 주 등 무효소송 참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허버트 베세라 검찰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주가 16개주로 늘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한국사위'로 유명한 공화당 래리 호건 주지사가 있는 매릴랜드를 포함해 16개주가 참여했다. 16개 주는 로라노,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매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 등이다.

소송의 피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방위,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이들 부처의 고위 관리들로 돼 있다.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효력 정지 가져분 신청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이곳은 2020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문제를 추가하려는 상무부의 노력, 환경규제, 이주자 망명 축소를 위한 정책, 수십만명 이민자들에게 대한 국토안보부의 특별 보호 지위 폐지 등에 대한 판결에서 트럼프 행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송에 참여한 주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획"으로 비판하면서 "각 주들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권력 분립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주민들과 천연자원,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체 주 중 3분의 1에 가까운 주의 검찰총장과 수백만명의 미국인을 대표하는 이번 고소장은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비효율은 소송이 될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16개주 소송단은 56쪽 분량의 고소장에서 "의회가 다른 목적으로 지정한 예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권력 분립에 위배된다"며 "헌법에 의의가 승인하지 않은 한 미 재무부는 정부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발효중인 미국의 국가비상사태는 31건으로 테러 등 국제범죄와 관련된 것이 26건, 무기·무역관련 2건이며 이외에 9·11테러, 쿠바위협, 이라크 오일 관련 3건 등이다. 뉴스

## "김정은 위원장, 육로로 하노이 이동 가능성"

### 중국 접경지대 랑선성 등 찾아...안전 최우선 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2차 정상 회담이 열리는 하노이까지 어떻게 이동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사전 준비차 베트남에 들어간 김 위원장 측근이 중국과 베트남 국경지역을 둘러본 점에서 육로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교도 통신과 마이니치 신문 등은 19일 김 위원장의 집사인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의 동선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전용열차 등을 이용, 중국을 거치는 육로를 통해 정상회담 개최지인 하노이에

들어갈 것이라는 억측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비서격으로 베트남 내 숙소와 의전 등을 조율하고자 지난 16일 하노이에 도착한 김창선 부장은 지난 17일 중국과 접경지대인 북부 랑선성을 찾아 역 등을 둘러보았다.

이와 관련해 김창선이 15일 평양에서 중국 베이징에 들어오고 다시 남부 광저우로 날아간 것도 김 위원장의 육로 이동에 무게를 실리게 하고 있다. 뉴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18일 오후(현지시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소로 거론되는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을 연이어 방문한 후 나오고 있다. 뉴스

## 인도령 카슈미르서 인도군경·반군 격전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18일(현지시간) 인도 군경과 반군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모두 9명이 숨졌다고 경찰 관계자들이 밝혔다.

풀와마 지구 주재 경찰 간부는 주도 스리나가르 남쪽 약 30km 떨어진 핑글란 마을에서 이날 새벽 인도 군경과 반군 사이에 교전이 시작해 18시간 동안 계속됐다고 전했다.

전투 와중에 인도군이 소령급 장교를 포함해 4명, 경찰관 1명, 반군 3명, 민간인 1명이 각각 목숨을 잃었다고 간부는 발표했다.

사망자 외에도 인도군 여단장과 중령, 경찰 고위간부를 비롯해 군경이 최소한 9명이나 다쳤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반군이 아직 현장에 있다는 정보에 따라 군과 무장경찰 증원군이 핑글란 마을을 포위 봉쇄하고 소탕작전을 전개 중이

라고 덧붙였다.

앞서 풀와마 지구의 레트포라 마을 부근 국도에서는 지난 14일 연방경찰 CRPF 소속 무장경찰의 차량 행렬을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 적어도 18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V K 싱 인도 외무차관은 이번 자폭테러를 파키스탄 지원을 받는 이슬람 반군 소행이라고 비난했다.

싱 외무차관은 트위터를 통해 "인도 군인이자 국민으로서 무자비하고 비합당한 공격에 피가 끓는 분노가 치민다. CRPF의 용사 18명이 풀와마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휴린 피 한 방울까지 보복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

이슬람 반군 자이시-에-무함마드(JeM)는 이번 테러를 자신들이 자행했다고 확인하면서 자폭범이 무장경찰의 차량을 노려 폭탄차량을 터뜨렸다고 주장했다. 뉴스

**부동산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100  
- B형 : 83×50 - C형 : 126×50

**UO work** 중개인이 성과가 되는 곳 **보증금/관리비**

유요워크 금남점 최대규모 **24시간 운영!!**

**소호사무실 입주사 모집**

**특장점**

- 보증금,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없음
- 최고급 인테리어, 사무집기 무료제공
- 무인 우편, 택배 보관 가능 • OA기기, 회의실 이용 무료
- 사업관련 제휴업체 연계(세무, 법률 등)
- 카셰어링 서비스 • 생체인식 보안시스템
- 사무장 • 주차장 • 산소발생기

**UO work 금남점 Tel. 1800-5711**

광주 동구 금남로 193-22 (금남로4가역 4번출구 2분거리)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캠핑카 주문제작·판매**

**푸드트럭제작 가능!**

**중고차 수입·합동·승용·합동**

**최고가 매입!**

대한민국 최저가로 제작·판매 합니다!!  
광주 서구 매월로 63번길 11

**(주)기가찬 H. 010-8647-3457**  
☎ 062) 651-0075

보증보험 가입업체 관허 97호 ◆ 20층 장비 보유 ◆

포장이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업체는 전 직원이 경력자로서 최상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공간을 안전하게 운반해 드립니다.

한국어든 **062)522-2424** 전남 전지역 **061)375-8824**

※ 견적은 무료이며 여사장이 직접 방문 ~ 절대 웃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업체 - 분심파손시 재정부서  
서비스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함 / 관허 124호

**LG 익스프레스**

**이사 마무리시 스팀청소 서비스**

- 선반·가구·싱크대·냉장고 청소
- 블라인드, 버티컬 탈부착 무료
- 2층~22층 사다리 보유
- 전국 체인점망 구축
- 에어컨 이설, 피아노 운반 전문

전국 **문의 080-925-1234, ☎ 572-8900**

**윤슬의 아침\_나주**

**명품 전원주택단지 분양**

**총 33필지 기반 조성중!** **061.334.3040**

**(주)디디하우징** **최고의 조망, 숲세권!!**  
동신대 한의학관 바로 옆